

‘대체불가’... 대표팀 투수진 이끄는 에이스 원태인·문동주

원태인, 올림픽·WBC 등 국제대회 경험... 올해 리그서 맹활약
2년 전 AG 결승서 호투했던 문동주... 올해 한 뼨 더 성장

어느덧 야구대표팀의 ‘단골 손님’이 된 원태인(삼성 라이온즈)과 올해 향상된 기량을 뽐낸 문동주(한화 이글스)는 투수진을 이끌어줘야 하는 에이스로 꼽힌다. 이들의 활약 여부에 대표팀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12일 체코(8~9일), 일본(15~16일)과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 35명 가운데 투수는 18명이 뽑혔다.

당초 선발 요원은 원태인과 문동주, 박빈, 최승용(이상 두산 베어스), 손주영(LG 트윈스), 오원석(KT 위즈)으로 구성됐지만, 최승용은 팔꿈치 피로골절로 지난달 23일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선발 투수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원태인이다.

원태인은 2020 도쿄 올림픽(2021년 개최),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년 개최), 2023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공을 던지며 국제 대회 경험을 쌓았다.

아시안게임에서는 2경기 모두 선발 등판해 1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APBC에서는 대만전에 선발로 출격해 5이닝 1실점 호투로 대표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단일 시즌 개인 최다승인 15승(6패)을 수확하며 박빈과 함께 공동 다승왕에

등극했던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에서도 건재함을 드러냈다. 27경기에 등판해 12승 4패 평균자책점 3.24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팀 가을야구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활약을 인정받아 대표팀 명단에 승선한 원태인은 투수조 조장까지 맡았다.

막중한 임무를 떠안은 그는 “막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대표팀) 연령이 젊어졌다”며 “이번엔 형들도 많이 없다. 인사를 먼저 드리기보다 받는 일이 많아서 어색하지만, 잘 이끌어보겠다”고 말했다.

원태인과 함께 문동주도 대표팀 투수진에서 ‘대체 불가’ 자원이다.

아시안게임과 APBC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문동주는 금메달이 걸린 대만과의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서 6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패투를 펼치며 대표팀 우승 달성에 앞장섰다.

지난해 정규시즌에서 21경기 7승 7패 평균자책점 5.17의 성적을 내며 성장통을 겪었던 문동주는 올해 한 뼨 더 자랐다. 24경기에서 11승 5패 평균자책점 4.02로 활약하면서 팀을 7년 만에 가을야구로 이끌었다.

비록 한국시리즈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75로 부진했으나 앞서 플레이오프 2경기에서 전력투구를 펼쳐 6이닝 10탈삼진 무실점을 호투한 장면은 팬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 이것은 대표팀 마운드를 지켜야 하는 문동주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던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몸 상태를 잘 끌어올려서 내 공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영암유소년씨름스포츠클럽, 전국어린이씨름대회 두각
이동건 사슴급 우승, 최인혁 통합부 준우승, 단체전 3위

영암민속씨름단의 후예 영암 유소년들이 전국 어린이 씨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달 2~4일 경남 거창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어린이씨름대회’에서 영암유소년씨름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사슴급 우승, 통합부 2위,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둔 것.

대회 2일 차 영암 금정초 이동건 선수는 55kg 이하 비등록 사슴급에서 뛰어난 기술과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날 클럽 선수들은 전남A팀으로 단체전에 출전에 3위를 거머쥘 때 대회 3일 차에는 그간 꾸준한 훈련으로 기량을 쌓아온 영암초 최인혁 선

수가 비등록 통합부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영암 씨름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는 클럽 이재신 코치와 영암초 최인혁·조승룡·변지하, 덕진초 채연후, 금정초 이동건 선수가 참가했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유소년씨름스포츠클럽이 전통 씨름 계승과 지역 체육인재 육성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성적은 선수의 노력과 체계적 코칭 시스템이 만든 결실이다”고 평가했다.

영암유소년씨름스포츠클럽은 올해 9/25일 창단체 지역 아이들이 전통씨름을 배우며 체력과 인성을 기르는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진도군 육상팀, 전국체육대회에서 ‘3색 메달’ 획득

창단 3년 만에 전국 강팀으로 성장... 진도군 스포츠 위상 드높여

진도군은 진도군 육상팀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부산 아시안경기장에서 개최됐으며, 진도군 소속 선수들은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1,600미터(m) 계주에서 남보하나 선수와 이서빈 선수가 완벽한 호흡과 협력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남보하나 선수는 여자 3,000미터(m)에서 추가로 은메달까지 획득했다.

또한, 조민혁 선수는 남자 1,500미터(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진도군 육상

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창단 3년째인 진도군 육상팀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는 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김후진 육상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 속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육상팀은 지난 5월에 개최



진도군 육상팀이 전국 종합 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팀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도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강
진도/오재명 기자

화순군청 복싱부 ‘빛나는 승전보’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 메달 3개 획득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청 복싱부가 제13회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에서 탁월한 기량과 끈기 있는 경기력으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6일 밝혔다.

남자일반부 -85kg급에 출전한 선현욱(화순군청)선수는 성남시청 김택민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여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청양시청 손경빈 선수에 석패 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60kg급에 출전한 서동근

(화순군청) 선수와 -70kg급에 출전한 국승준(화순군청) 선수 역시 끈질긴 투지와 강한 정신력을 발휘해 각각 동메달을 차지하며, 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화순군청 복싱부의 위상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기량을 더욱 발전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